‘끝없는 추락’ 광주 광산업 제2도약 급하다

업계 폐업·매출·고용 추락…자본·기술 한계
“지자체·관계기관 중심 컨트롤 타워 구축해야”

광주의 대표 주력산업이며, 전략산업이었던 광산업이 끝없이 추락하면서 매출은 고사하고 고용인력도 해마다 감소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광주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정부로부터 지역전략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된 뒤 집중적인 투자와 기술력으로 광주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됐다.

1993년 광주과학기술원 설립을 중심으로한국광기술원,한국광산업진흥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고등광기술연구소, 광주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이 들어서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광주시와 광산업 육성 및 집적화 사업에 적극 나서는 등 지역경제의 축으로 자리매김 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부터 중국산 발광다이오드(LED) 등 저가 광 제품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정부 지원금마저 줄어들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전국 광산업체의 300개사가 모여 있는 광주 광클러스터 기업은 대부분 영세해 해외 수주나 신기술 개발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이거나 이전하는 곳도 수십 곳에 달한다.

실제 광기술원 입주한 태양조명 제조기업기업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처리됐다.

LED 형광체 제조사들도 경쟁력이 떨어져 매출이 부진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매출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실제 광주 광산업 생산 규모는 1999년 1,136억 원, 2012년 2조 5,904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조 2,705억 원으로 줄었다.

매출과 더불어 고용인원과 업체 수도 줄었다.

지난 1999년 47곳(1,896명), 2012년 360곳(8,242명), 지난해 276곳(7,513명)이었다.

2013년 대비 84곳이 폐업을 했거나 이전 했고 1,000명의 인원이 일자리를 잃었다.

문제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과 지식재산권 등 R&D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매출과 고용인원은 물론 업체 수가 급감 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이 많다 보니 단순조립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다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여기에 광주시, 광기업 연구소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및 특화산업과 연관된 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선도해야 하는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LED제조기업 관계자는 “한때 광주의 간판산업으로 명성을 얻었던 광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이 선택과 집중’으로 기술력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보유한 업체를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광주시는 우선 공공시설물 LED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로등, 보안등 의무설치와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으로 공동 판로개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광통신부품, LED 보급 협동조합 설립 지원, 국내외 메이저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또 국광산업진흥회는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과 국제광산업전시회에 역량을 집중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LED 등 일부 분야에서 저가 중국산 공세 등으로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광통신, 광학기기 등으로 경쟁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는 광산업을 기반으로 광의료, 전장부품, 에너지 사업 등 융·복합을 통한 신산업 위주로 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농어촌공, 불합리한 관행 철폐
현장중심 개혁 과제 발굴 개선

한국농어촌공사는 불합리한 관행 철폐와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장중심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키로 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올해 총 네 번 열린 ‘KRC 개혁위원회’에서 현장중심의 개선과제로 고객행정 서비스 개선, 사회적 약자 보호, 업무 투명성 확보 등을 선정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는 고객행정 서비스 개선과제로 사용면적 30㎡이하인 농업생산기반시설부지 ‘사용허가 절차 및 서류 간소화’를 결정했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적용 신고’ 의무화 및 ‘일용인부의 운영기준’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신기술 업무처리 세부기준’을 마련해 우수한 신기술 현장적용을 적극 장려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조익문 상임감사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에 주력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중기지방청, 스마트공장 확산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이 지역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확산 유치에 나선다.

중기지방청은 지역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지원을 위한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경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공장은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인공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중기지방청은 이번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추경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90개사 지원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역 49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이 구축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과 이미 구축된 스마트공장의 고도화를 지원하는 ‘생산현장디지털화’로 나눠 진행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5천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스마트공장이 기 구축된 중소제조기업의 수준향상을 위한 고도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억원(매칭비율 차등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IoT 적용 및 실시간 모니터링 범위확대 등을 위해 컨트롤러(제어기), 자동화 장비 등 설비의 추가 도입으로 시스템과 연동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먼저 매칭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은 ‘스마트공장 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bms.smart-factory.kr)’,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은 ‘정보화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it.smplatform.go.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2018년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직원과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을 하는 등 사업 종료 시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형 중기지방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공장 도입은 필수다”며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아오리 맛 보세요”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 지하 1층 식품관 청과코너에서는 제철을 맞아 풋풋한 향과 상큼한 맛이 일품인 ‘아오리’를 선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출하되는 사과 품종인 ‘아오리’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및 소화 불량에 좋다. 가격은 개당 1,360원.

자동차보험료 2년 만에 오른다

10월께 최소 3~4% 예정

자동차보험료가 약 2년 만에 오른다. 인상 폭은 최소 3~4%, 시기는 오는 10월께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이 누적됐다”며 “자동차 정비수가 협상이 이달 중 윤곽이 나오는 가운데, 손해율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일부 대형 손보사가 9월 또는 10월에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요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약 20%로 예상되는 정비요금 상승이 가장 직접적 인상 요인이다. 이 때문에 연간 보험금 지급이 3천억원 늘고, 보험료에 2.9%의 인상 압박을 가한다.

업계 1위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형 손보사들이 먼저 정비요금 상승을 반영한 자동차보험료 요율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삼성화재가 보험료를 올리면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손보사들과 나머지 중·소형 손보사들이 시차를 두고 보험료를 따라 올린다. 올해 1분기 말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2.6%를 기록했다.

나주 방문한 김병원 농협 회장
폭염피해 지원 5천억 긴급 편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폭염 피해 지원을 위해 무이자자금 5,000억원을 긴급 편성키로 했다.

김병원 회장은 지난 3일 나주 폭염 피해 현장을 방문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범농협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전국에서 농작물 고사와 가축 폐사가 급증하고 있다. 김 회장은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피해예방과 복구지원 무이자자금 5,000억원을 긴급 편성·지원한다.

범농협 임직원 자발적 성금 모금·기부 4억원, 양수기 등 관수장비 3,000대·약제 및 영양제 25억원 지원, 면세유 4억원 추가배정, 540개 공동방제단을 통한 축산농가 살수지원, 피해농가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도 한다.

이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행복콜센터(대표번호 1522-5000) 평일 연장·휴일 근무를 실시하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김병원 회장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인들은 생계위협을 받을 정도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며 “농협은 피해 농업인의 심정으로 농식품부 등 정부와 적극 협력, 신속한 지원대책을 준비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2018년도 신규협력업체 모집

골드클래스(주)에서는 경쟁력 있는 전문건설업체를 발굴코자 협력사 신규모집을
실시하오니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등록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분야
가. 모집부문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 전문건설업체
2) 건축, 토목, 조경, 기전, 자재 등(첨부파일 참조)
나. 자격조건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 또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 법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기준에 있지 아니한 업체
2)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B 이상(이크레더블 외 신용평가 전문업체 동일등급 가능)
3) '17년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40% 이내(자재업체 제외)
4) 건설업 영업기간 3년 이상

2. 등록기간 및 세부항목
가. 등록기간 : 연중상시
나. 제출서류 : http://www.goldclass.co.kr (팝업창 확인)

3. 접수처
가. E-mail 접수 : iomeg2@hanmail.net(외주)
didinii@naver.com(자재)
나. 전화 : 070-4343-6350(외주-조달팀 장승권주임)
070-4343-6320(자재-조달팀 강신애과장)

2018년 신입 및 경력직 수시모집

1. 신입 및 경력직 모집부분 및 응시자격

모 집 구 분			지역	인원	지원/우대사항
공사관리팀	건축(공사,공무)	경력	전국	OO명	-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시공업무 경력 유경험자
	안전관리	신입			- 모집부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신입:필수)
	품질관리	경력			- 초대졸이상 졸업자
	설비		의왕		
고객지원팀	현장하자 관리직	경력	전북	O명	- 공동주택(아파트) A/S관리 경력자

2. 전형절차 : 서류전형→면접진행→최종합격 및 입사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기술인협회 발행분)
4. 접수방법 및 기간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lim9499@hanmail.net)
- 접수기간 : 채용시 마감
5. 문의사항 : 총무업무팀 062-233-3999 (내선102)

골드디움(주) 골드종합건설(주) 보광건설(주) 보광종합건설(주)
골드클래스(주)